

연중 제16주일

기도서 P. 394 A해

제1독서(지혜 12, 13, 16-19)
 제2독서(로마 8, 26-27)
 복음(마태 13, 24-30)

숲정미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사목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교구청
 ☎ 5098 ③3201

▶ 감론



선생님 농사 잘못 지었읍니다요

김진소 신부

갈릴리 평야는 4월이면 누렇게 익은 밀로 이불을 덮는다. 예수님은 '극성스럽게 쫓아 다니는 청중을 피해 모처럼 한가하게 제자들과 함께 호수가에서 하늘바람에 출렁이는 밀밭의 황금물결을 바라보며 휴식할 취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아까부터 베드로의 눈치를 살폈다. 짝하면 입맛이라고 잔뜩 으등그린 쌍둥이 뽕가 심사가 안좋은 눈치다. 「베드로 자네 왜 그러나?」 드디어 베드로의 불면은 입이 터졌다. 「선생님 우리 밭농사 짓는갑디다요. 뽕이나 그 나물마을에서 선생님한테 이 생명 다하도록님의 뜻 따르리라고 혈서쓴 촌가 있지요. 본시 교언영색(巧言令色)이라고 얼굴근육에 주름잡고 살살이 꼬리치는 사람치고 볼 수 없지요만 아 글씨 그자가 고라신에다 회당 짓고 저가 선생님 가운데 토막이나 되는갑시 뽕을 처가며 신앙으로 뽕끼절하고 사람 흘겨먹고 산답니다요. 뽕이나 선생님에 뽕들 팔아 유학 보냈던 뽕들 어른대개가 냉장고속에서 피서한답디다요. 또 우리 따라다니던 애들 중에는 빌라도하고 친목 제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말은 안할려다가 하는건디 막달라 고을에서 채용해온 최갑순이 있지요. 그 처너는 일은 좀 주어내는가는 몰라도 어찌나 출랑하며 팔도 방정을 떠는지 선생님따라다니는 여자가 저따위냐고 성모님 인상까지 후정크려 놓습디다요. 앗따 이 농사도 못해 먹었내요. 허 빼가며 뽕어 봤자랑게요.

예수님은 김이 팍 새었다. 이미 작으한바지만 그런 뽕 빠지는 꼬락서니가 너무 빨리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회개의 턱거리를 하고있는한 힘은 솟기 마련이다. 예수님은 침착하게 「베드로 주름퍼 왜 그 뿐인가 달라늘것 없이 못마땅하고 타일러도 쇠귀에 경읽기 같은 인간있지. 미쳐~. 그렇나 실망만은 아니잖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근엄한 율리적 귀족이나 정신적인 자본가를 원치 않으셔. 신앙생활이란 인생관과 가치관을 하느님의 뜻으로 끊임없이 개조해 나가는 죄인의 삶이야. 그래서 신앙은 끝없는 회개의 여정이지 개방에 도토리 많이 쉬었다고 밥통채 없어버릴 수 없고 밀밭에 가라지가 더 많다고 불을 쳐지를 수없잖나. 기다려, 개판으로 사는 사람도 환갑때는 종말때는 철들날이 있겠지. 지루하고 답답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를 기다리는 거야. 나도 작살내고 싶지만 참는거야,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거든. 심판은 아버지의 독결 사업이야. 서둘러 영등한 사람이 피볼 수도 있어.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오해받는 성급한 행동은 삼가해. 인격은 계속 성장하는 것. 마지막 죽는 순간이 최후의 성장인지 몰라. 역사도 성장되어 가고 있잖아.」

이런 충고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입맛은 뽕뽕했다. 미구에 당할 더 큰 실망과 배신을 뿌연게 예견하기 때문이다.

<대학생회 지도신부>



뽕팅 포음

시속 백이삼십 킬로메터로 날아드는 주먹보다 작은 공을 겨냥했다가 딱 때리고 달리는 야구는 참으로 재밌는 운동이다. 뽕스(뽕장)를 넘는 공을 낚아 채다던지, 앞으로 거의 끈두박질을 하면서 던져내는 모습은 한쪽의 그림이 아닐 수 없다. 시원하게 뽕장을 넘어 관중석에 뛰어드는 선량한 무법자에게서는 장쾌함을 느끼기까지 한다. 거기다가 투아웃부터 시작이라는 야구의 묘미와 끈질김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교훈을 얻기도 한다.

한미 대학야구가 한창이다. 문득 던져지는 어나운서와 해설자의 대담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다. —“미국 대학생들의 뽕팅 폼(타격 자세)은 왜 저렇게 제각각이죠?” “야구의 목표는 오직 안타를 쳐서 득점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는 문제가 안됩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방망이를 휘둘러 안타를 쳐낼 노력을 하면 됩니다. 미국의 코치나 감독은 그런면에서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각자에게 맡기는거죠.”—바로 이것이다. 같은 목표를 향한다면 방법은 자신의 능력이나 취향에 맡기는 것이다.

지난 70년대의 우리나라 정국은 상당한 격동에 시달렸다. 정치책임은 진 사람과 그것을 지켜보는 양심세력간의 방법론이 달랐다. 모두가 잘살자는데는 의의가 있을 수 없었다. 다만 방법상, 나라가 있어야 인권도 있다는 주장과 그렇다고 해서 인권을 한 수 아래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서로 맞섰다. 대등한 입장의 맞섬이 아니라서, 목표를 향하는 방법까지도 좋아야 한다는 양심세력은 수난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는 이래서는 안된다. 국민이 구경꾼 아닌 주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국가이니까. 발가벗은 임금님의 이야기가 결코 동화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숲정미 산책



성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②

성서공부의 출발은 성서봉독이다. 사실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대개가 경험하겠지만 구약성서를 앞에두고 어리둥절하게 되고, 큰 결심을 하고 읽어 내려가다 도중에 포기해 버리고 다시 펼쳐볼 용기를 잃고 만다. 분량도 분량이거니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또 놀라운 사건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온갖 스캔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그러나 그런 역사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중에 있고 드디어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이 이루어 지게됨을 잊지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성서를 읽는 일이다. 자주 규칙적으로 성서를 읽는 것이야말로 성서 공부에 최선의 방법이다. 조금씩, 그리고 한장씩 성서를 넘길 때마다 그리스도를 중심삼고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사건과 변화무쌍한 시간의 배경과 굳건히 서있는 교회도 보게 될 것이다.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에 대한 신념을 갖고 오늘의 위기와 시련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교회의 정신과 시야를 갖게 될 것이다.

성서를 읽을 때마다 성서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방향을 주고 새로운 도전을 일으킨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안에 우리가 맡게 된 역할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기대하신다. 이 응답은 바로 기도이다. 마음과 정신의 기도일 뿐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기도이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가는 생활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대 하신다. 성서 봉독은 바로 우리들의 기도생활과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갈 삶의 지침인 것이다.

성서 봉독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처음부터 시작하여 바로 읽어 갈수도 있겠고, 다음은 성서를 닦치는 대로 여기 저기 읽을 수도 있겠다. 셋째 방법은 어떤 기본적인 봉독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읽어 나가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서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또한 성서속의 거대한 사건들과 사상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히려 셋째 방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성서는 읽혀지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세속사의 산만한 머리로서는 성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고 성서를 덮어두고 그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가능하면 매일 매일 조금씩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 것이다. 무엇 보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다. 다음에는 성서봉독의 계획을 제시해 보겠다.

천주교 명월리 성당 축성!

교형 자매님의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 천주교 명월성당(주임 정승현 군중신부)이 하나님께 봉헌 된다.

전방에서 수고하는 군중신부님과 함께 기뻐하며 축복을 빌자.

일시: 1981년 7월 25일 오후 2시

장소: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소재 천주교 명월성당

주례: 김수환(스데파노)추기경님

교통안내: 서울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사창리 경유 버스를 타고 명월리 사단 사령부 앞에서 내리면 됨
천주교 명월성당 축성식
기도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승 렬 신부—

어린이들의 벗,

뽀빠이 이상용과 함께

오는 8월 2일 제4지구에서는 뽀빠이 이상용씨를 초청하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한때를 보내기로 했다.

오후 1시에 성심학교 강당에서 합동미사를 봉헌하고 2시부터 4시까지 뽀빠이 아저씨의 사회로 진행되며, 4지구 각분당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연극, 무용, 합창 등 장기가량이 곁들여진다.

※ 참조: ① 신주머니 지참
② 뽀빠이 기념티셔스 판매 3,000원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마태오 11:28-30)

“...진 칙묵속에 요구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전장, 전 강뿐인데 자꾸만 회미해지려는 삶에 회복이 불가능함이 느껴질 때, 걸잡을 수 없는 눈물속에서도 하나님 곁에는 있을 곳이 많다면 예수님 말씀, 마음에 담으면서 이 생명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모든 고통과 유혹을 신앙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불행하게도 몸쓸 병에 걸려 팔막한 삶속에서도 죽음에 대한 커다란 용기와 생애대한 자신을 끝까지 잃지않고 지키다가 세상을 떠난 어느 여학생의 글입니다.

인간이 산다는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이 시대에 도 아저것 제지할수 없는 여러 괴로움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의학이 육체의 고통을 가볍게 하는데도 성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영혼의 괴로움은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괴로움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삶에 대한 용기— 이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 잡다한, 자신의 생활을 뒤돌아 보고 하루 한번쯤 진지하게 자신의 삶에 어떤 불을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좀더 우리의 삶을 의미있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팸스콜라·질성 사이다·
썩썩 오렌지·스카시

롯데칠성음료 군산대리점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도 배달해 드립니다

전화 ② 2858

채 베로니카 (지은)

□ 생화·각종화분·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 주세요

진선미꽃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띠도(떡배)·이 마리아

□ 금·은·보석·시계는
남문열 교우집을 찾아주세요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열(대지여관 입구)

전화 ②4989(사구팔구) ②4988

□ 교구산하 제 단체장 연석회의를 끝마치고

지난 7월 4일에 금년들어 두번째의 단체장 연석회의를 갖었다.

15단체(명협, 인성회, 교리교사회, 중·고연, 노동청년회, 농민회, 프란치스코 형제회, 의사회, 약사회, 매스컴위, 꾸르실로, 행가운, M·B·W, 신학생장학회, 성가대연)가 참석하여 교구의 동향을 청취하고, 각 단체별로 상반기 사업보고를 들었다. 활력 넘치는 보고는 서로를 격려했으며, 드러나지 않게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 적이 늘었다. 또한 단체간 상호 협조하여 더 많은 선교활동을 하자는 결의를 나누며 회의를 마쳤다.

□ 유장훈(요셉) 신부 귀국

제 캐나다의 교포사목을 담당했던 유장훈 신부님이 만 4년 4개월에 걸친 소임을 다하고 7월 13일에 귀국했다. 떠날 때보다 훨씬 건강한 모습에 특유의 웃음면 얼굴은 옛 그대로이다. 유신부님은 다음 인사발령까지 교구청에 머무신다.

□ 마리아 빨리 '81

일시 : 1981. 7. 25(토) 12시~7. 28(화) 오후 2시까지 (3박 4일)

장소 : 충남 논산읍 부창동 썬벨 여자 중·고등학교 전화 2864·2865번

회비 : 초·중·고등학생(12,000원), 성인(14,000원)

교통편 : ① 논산역 하차후 논산 시내버스를 타고 태성주유소 앞에서 하차

② 터미널에서 도보로 5분소요

준비물 : 세면도구, 칩구(담요, 핫이불, 베개 등), 미사도구, 켈노래책, 성경 등

주 제 : "하느님의 뜻"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 생활체험을 통하여 매순간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 어린이 여름철 교리준비를 위한 연수회

금번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 특별교리를 준비하기 위한 교리교사 연수회를 개최하오니 교리 담당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7월 25일~26일까지 ※ 접수-25일 2시까지 장소-가톨릭센터 강당

강사-한국 교리교육위원회 2명, 레크레이션-김경호 선생(서울)

회비-전주·이리·군산(4,000원), 기타지역(3,000원) ※ 기타는 공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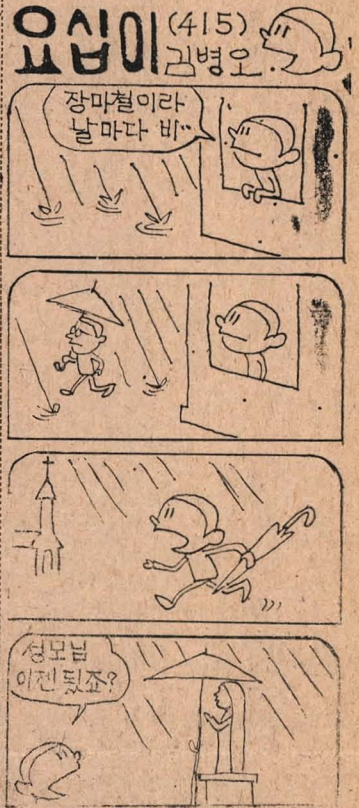
<전주교구 교리교사 지도신부>

□ 가톨릭 대학생회 봉사활동에 땀 흘려...

가톨릭 학생회(지도신부 김진소)에서는 여름 방학을 맞아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원평본당과 고산본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원평대 가톨릭 학생회는 45명으로 구성되어 원평의 텃밭 공소에서 ① 공소 수리와 화장실 건축 ② 어린이 교리교육 ③ 의료봉사 ④ 미음봉사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한터위를 있고 있는데 특히, 의료봉사는 승정우 한의원(지도교수)의 동참으로 한방 처방과 치료에 한의대생들은 바쁜 일손이란다. 또한 보건전문대생들의 구충작업과 더불어 인접 공소까지 이동진료를 하고 있다.

한편, 서해공전 학생회에서는 11명이 고산 천호 공소에 들어가 순교자 묘역 도로 보수와 각 가정의 전기 시설물을 점검 및 보수하면서 교우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한다고 한다.



회원 모집

본 연구원은 여성들의 취미 및 부업을 위한 여성 교실입니다. 바가지 공예를 배우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수시로 접수(개인지도)

김 정 자

바가지 공예 연구원

김 정 자(마르타)

조흥은행 2층 주택은행

←오거리 이경범
방사선과의원

중소기업은행

建設部登録 測量設計業

大路技術

代表 金鍾淳(베드로)

全州市 中央洞 1가 36~13

(명동여관 뒤편) 전화 ③3606

1. 土地形質變更 측량설계
2. 住宅建設團地 "
3. 都市計劃施設決定(학교등)
4. 國公有地占用許可 측량설계
5. 其他各種土木工事의 측량설계

보신·보양·고단위 영양식품
토롱탕을 권합니다.

土龍의 집

전주시 경원동 1가 78-3

(민중서관 옆 송월타운 2층)

전화 ② 8269

정형석(시메온)

X선검사-일반촬영, 특수촬영,
종합검사는 X-ray전문의원을
찾아주세요

군산방사선과의원

원장-방사선과 전문의

오종현(프란치스코)

군산시 중앙로 1가85-2

(시청 정문앞 이성당 2층)

전화 ③ 4331·②2275

※ X선 TV, 자동 현상기 등
최신기계 도입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1. M·B·W <기초코스> 연수회: 일시-7월 27일 오후 2시~30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접수-교구청 사목국, 7월 25일 오전 10시까지, 회비-20,000원(40명 선착순)
2. 교리교사 연수회: 7월 25일~26일 ※ 본지 3면 참조
3. 81' 농촌 지도자 연수회: 일시-7월 27일 오후 1시~30일 정오, 장소-가톨릭센터, 인원-50명 선착순(추천서 기록 요), 참가비-4,000원

(중앙)

전화 ③3651번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유유림
보좌 신부 박탁민
사도 회장 김병호

1. 성모회: 공식미사 후 강담
 2. 착한 사마리아인회: 22일<수> 오후 2시 본당신부 사무실
 3. 마리아 뽀리: 7월 25일~28일 3박4일 논산 선풍여자중·고, 회비-성인 14,000원, 중·고학생 12,000원(본당에서 반액 보조), 접수-7월 20일까지 박인호 신부님께, 기타 상세한 것은 교구 소식란 참조
 4. 성령세미나: 7월 27일(월) 오후 8시~8월 1일(토)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회비 2천원
 5. 금요 성서연구: 매주<금> 어머니미사후·저녁미사후
 6. 어린이 영세: 7월 31일<금> 어머니미사 후 당일 10시까지 신청
 7. 첫 영성체 교리: 국민학생 토요일 오후 3시 중·고 토요일 오후 6시·수요일 오후 8시(2회)
 8. 예비자 교리: 교우여러분은 예비신자에 관심을...
 9. 주일학교 여름학교: 8월 3일~6일, 오전9시~12시
- 지난주 봉헌금: 522,136원

(노충동)

전화 ⑦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1. 은혜의 밤: 31일<금> 저녁 8시부터
 2. 감사합니다: 채충석(베드로)씨께서 성당 마이크시설 전액을 회사해 주셨으며, 성전에 선공기 시설을 익명으로 해주신 두분께 감사
 3. 금주의 성경읽기: 구약의 역대기 하편
 4. 베소라 성서강의: 매주<화> 저녁 8시부터
 5. 수녀님들 위한 베소라 성서특강: 매주<월> 오후 2시
 6. 주일학교 하계 방학교리: 27일~8월 1일까지
 7.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 직장인-오후 8시~10시까지
 8. 교무금 납부의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349,655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서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1. 주일학교 오늘 방학: 어린이 보내주세요
 2.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11시, 수요일 저녁 8시
 3. 성서 연구모임: 어머니팀-수요일 오후 3시 젊은이-금요일 저녁 8시
 4. 어머니 성가대 성가연습: 토요일 오전 11시
 5. 정원: 각 단체별로 제조작업 하세요
 6. 여름 특별교리: 첫영성체 못지킨 어린이 보내주세요 3학년 이상
- 지난주 봉헌금: 409,15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희택
보좌 신부 김희성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주일학교 하계 특별교리: 7월 29일~8월 4일 오전 9시~12시,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3. 마리아 뽀리: 7월 25일~28일, 논산 선풍여고에서
- 지난주 봉헌금: 320,280원

(서화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할머니회: 공식미사 후
2. 구역미사: 21일(12반), 22일(13반), 저녁 8시
3. 중·고등학교 하계수련회: 8월 3일부터 6일까지(3박 4일), 장소-지리산(미리 신청 바람)
4. 교리교사 수련회: 7월 27~30일(3박 4일), 장소-홍도

5. 교리교사 연수회: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가톨릭센터
 6. 본당 정화사업 헌금: 총공사비: 934,300원
정형석·오상팔·신이근·김태수·김준수·김순덕·김영림·최병화·박병환·김수길·김덕동·김순복·김판례·이경애·장안웅(각 10,000원), 유민승·이복남·김옥림·손중열·김광자·최확철·김상덕·양해순·박석근·손옥중·유혜미·박진주·이원용·정정순·김백수·박종갑·전태문·유성관·배복배·김한용·임백순·정문오(각 5,000원), 최복동·박옥순·김필수·김삼순·이의덕·이영애·김중태·전행민·고준례(각 3,000원), 안경순·김종복·박명배·신달순·한완순·조갑주·박용순·윤순례·김병선·전명자·장명숙·남막달레나·문기선(각 2,000원), 유아산·박복순·이순복(각 1,000원), 기태순·김재열·이용환(각 20,000원)·조동호(30,000원), 김강미(50,000원)·한형수(100,000원), 익명(10,000원), 신부님(20,000원), 누계: 976,500원
 7. 다음주 전례: 독서-이정민·정형석, 기도-이희우
- 지난주 봉헌금: 163,105원 교무금: 95,0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번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성모회 월례회: 7월 19일 공식미사 후, 구유치원교실
 2. 요안나 월례회: 7월 19일 공식미사후 김귀선씨 때
 3. 중·고등학교 하계수련회: 7월 28일~31일(3박 4일)
 4. 남·여 청년들은 처명자의 모후 레지오에 가입하시라, 첫영성체 교리 7월 20일부터 매일 9시
 5. 성서연구: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
 6. 예비신자 교리: 매주 공식미사 후, <수>오후 3·8시
 7. 류발렌티나 수녀님 7월 19일~8월 30일까지 본당활동
 8. 전화번호 안내: 수녀원 ③9567번(유치원 겸용)
 9. 숲정이 신동조합 ④7522번
 10. 차주 전례담당: 해설-정주복 독서-이원일·송정원, 기도-이귀케
- 지난주 봉헌금: 320,620원

(전동)

전화 ②3222번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박준두
사도 회장 이종두

1. 꼬미씨음: 오후 2시
 2. 성화회: 공식미사 후
 3. 글라라 형제회: 다음주(26일) 오후 1시 30분
 4. 보미사단, 6학년 수련회: 7월 21일~23일, 고산천
 5. 첫영성체 교리: 7월 27일~8월 4일, 시간-오전 9시
 6. 주일학교 하계특별교리: 7월 27일~8월 1일, 오전 9시
 7. 중·고생 하계특별교리: 7월 27일~8월 1일, 오전 9시
 8. 중·고생 하계수련회: 8월 3일~6일, 진안 모정리
 9. 울뜨레아 모임: 7월 25일(토) 오후 8시, 전통사제관
 9. 수녀원 신축기금 모집 어머니성가대·성가대회에서
 9. 을료수 판매: 신자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10. 다음주 전례담당(26일)
아침미사: 해설-박중주, 독서-① 이진홍 ② 박순기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 박도식 ② 백종훈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 변해식 ② 정동희
- 지난주 봉헌금: 443,38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협

1. 성모회 월례회: 다음주 10시미사 후
 2. 대학생 모임: 다음주 저녁미사 후
 3. 교리교사 연수회: 25~26일
 4. 유아세례: 다음주 오후 3시 미사 후(사무실에 연락)
 5. 첫 고백 및 첫 영성체 교리교육
10명 미만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신청 바람)
 6. 예비자 교리: 주일 공식미사(10시) 후
 7. 최근 영세자 첫 고백성사: 7월 21일 저녁미사 후
- 수녀원 신축금: 안 엘리사벳(10,000원)
□ 지난주 봉헌금: 134,635원 교무금: 106,000원